

주간 중동 건설동향

2024. 2. 16.



한-UAE 인프라협력센터

주간 중동 건설동향

- 목 차 -

1. 주간 건설시장 및 경제 동향

- UAE, 바라카 4호기 최종 테스트 진행 중
- UAE, 3개사가 DEWA에 수소 컨설팅 서비스 입찰서 제출
- 쿠웨이트, 건축 자재 가격 통제 방안 모색
- 이라크, 전력 프로젝트에 800억 달러 이상 투자 예정

2. 주간 MEA 건설 프로젝트 동향 (발주 및 수주 정보 등)

- UAE, 2분기 중 아부다비-두바이 고속철도 PQ 초청 전망
- UAE, Emaar, 자빌 멀티타워 개발 계획
- UAE, 2분기 중 두바이 하수터널 PPP사업 PQ 절차 시작 예정
- UAE, 타이탄 리튬, KEZAD에 13억불 규모 리튬 가공 플랜트 개발 추진
- UAE, EDF/한국서부발전 컨소시엄, 알 아즈반 태양광 IPP 수주
- 이라크, 두 건의 메트로 PPP 입찰서 발행
- 이라크, 말레이시아 컨소시엄과 메트로 프로젝트 컨설팅 계약 체결
- 이라크, 메가 레일 프로젝트 2025년 초 착공 계획
- 이라크, 1GW 나자프 태양광 발전소 계약 체결 임박
- 모로코, 중국 기업의 메가 철도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 대두

3. 국제유가 및 환율 동향

- 국제유가 : Brent, WTI, 두바이유
- 환율 : USD, JPY, Euro

1. 주간 건설시장 및 경제 동향

□ UAE, 바라카 4호기 최종 테스트 진행 중

- UAE의 연방 원자력규제청(FANR)이 현재 바라카 원전의 네 번째 원자로에서 최종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고 밝힘
- FANR은 지난해 11월 바라카 원전 4호기의 운영 허가를 발급했으며, 이후 새로운 핵연료 장전을 완료하고 현재 최종 테스트를 진행 중
- FANR의 사무총장 크리스티 빅토르손에 따르면 4호기의 본격 가동을 위한 전력망 연결 과정이 수개월 내에 시작될 예정

< 출처 : Zawya (2024. 2. 14.) >

□ UAE, 3개사가 DEWA에 수소 컨설팅 서비스 입찰서 제출

- 글로벌 컨설팅 회사 3곳이 두바이 수전력청(DEWA)에 수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위해 입찰서를 제출
- 이 컨설팅 서비스는 계약 체결 후 10주 이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, Deloitte Professional Services가 최저가인 AED 266만(70만 달러)를 제출했고, McKinsey & Company는 AED 790만 AED, Strategy &은 AED 370만을 제출
- 이 건은 작년에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수주한 DEWA의 수소 전략 연구와는 별개의 계약으로 파악됨
- * 두바이는 최근 두바이 탄소배출 넷 제로 2050 및 두바이 청정에너지 전략 2050도 발표했으며, 두바이 미래 에너지 위원회도 2050년까지 두바이를 탄소 중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 개발을 확정
- MEED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1월 현재 UAE에서는 아부다비를 중

심으로 최소 12개의 수소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음

< 출처 : MEED (2024. 2. 14.) >

□ 쿠웨이트, 건축 자재 가격 통제 방안 모색

- 쿠웨이트가 물류 문제로 인한 건축 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지속적인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아랍어 일간지 알카바스가 2월 14일 보도
 - 알카바스는 공식 소식통을 인용해 압둘라 알주안 상공부 장관이 물류 장애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패널 구성에 대한 결의문(decision)을 공표했다고 전함
- 이 같은 조치는 높은 운송 비용으로 인한 철강, 목재 및 기타 건축 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것으로, 건설 프로젝트 비용 급등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함임

< 출처 : Zawya (2024. 2. 14.) >

□ 이라크, 전력 프로젝트에 800억 달러 이상 투자 예정

- 이라크가 경제 확장과 꾸준한 인구 증가로 인한 국내 수요의 급증에 직면하여 전력 부문에 800억 달러 이상의 투자 목표를 설정했다고 Shafaq News가 보도
 - 이라크 정부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동국은 경제 활동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후 계획의 일환으로 전력 프로젝트에 민간 참여를 장려하는 계획을 세웠으며, 향후 몇 년 동안 전력 생산을 늘리기 위한 프로젝트에 80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
- 이라크는 외국 기업과 총 용량 약 7.5GW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으며,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계획에 따라 더 많은 프로젝

트를 추진할 계획

< 출처 : Zawya (2024. 2. 14.) >

2. 주간 MEA 건설 프로젝트 동향 (발주 및 수주 정보 등)

□ UAE, 2분기 중 아부다비-두바이 고속철도 PQ 초청 전망

- 에티하드 레일이 2024년 2분기 말까지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연결하는 UAE의 고속철도 노선에 대한 PQ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됨
- 에티하드 레일은 이달 초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이 노선의 초기 공사에 대한 EoI 제출을 요청하고 UAE 고속철도 프로젝트의 착공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, 이 네트워크의 초기 공사에는 토공 및 기존 인프라/유틸리티 전환 작업 등 건설공사를 위한 사전 부지 정리 및 준비 작업이 포함됨
- 두바이의 Matcon Testing Laboratory와 아부다비의 Engineering & Research International은 고속철도가 통과할 지역의 지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두바이의 자다프 지역 등에서 시추 테스트를 이미 진행 중
- 이 프로젝트는 현재 건설 공사가 대부분 완료된 UAE의 화물 철도 네트워크와 동일한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200km/hr로 운행될 에티하드 레일 여객 서비스와는 별개로, 고속철도 서비스는 시속 300km 이상의 속도로 운행될 예정
- 에티하드 레일은 이전에 UAE 내 고속철도 연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바 있으며, 이 프로젝트의 엔지니어링 컨설턴트는 스페인의 Sener와 Ineco가 맡고 있음
- 2021년 말, UAE는 전국에 통합 화물 및 여객 운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AED 500억(136억 달러) 규모의 프로그램을 시작함

- 이 프로그램은 세 가지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는데, 그 중 첫 번째 프로젝트는 화물 철도망 구축, 두 번째 프로젝트는 여객 서비스를 포함해 알 실라에서 푸자이라까지 아랍에미리트 내 11개 도시를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, 통합 교통 서비스를 다루는 세 번째 프로젝트는 스마트 교통 솔루션을 전체 계획에 통합하기 위한 혁신 센터를 설립하고, 경전철 네트워크를 철도 승객 시스템과 연결하여 UAE 도시 내 교통을 원활하게 할 계획
- * 여객 운송 계획은 200km/h의 속도로 아부다비-두바이 간 이동 시간을 50분으로, 아부다비-푸자이라 간 이동 시간을 100분으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이며, 2030년까지 3,650만 명 이상의 승객이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

< 출처 : MEED (2024. 2. 13.) >

□ UAE, Emaar, 자벨 멀티타워 개발 계획

- UAE의 부동산 디벨로퍼 Emaar Properties가 두바이 자벨 지역에 멀티타워인 Address Residences Zabeel을 건설할 계획
- 2027년에 완공될 이 프로젝트는 1~4베드룸 주거용 유닛 1,600여 개, 2,600m²의 소매 공간, 2,000대의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4개의 타워로 구성되며, 각 타워의 높이는 50층, 58층, 52층, 54층임
- Emaar는 최근 두바이의 다른 부동산 프로젝트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룸
- 지난달에는 두바이-알 아인 도로변에 위치한 '더 벨리'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엘로라(430세대) 및 릴리아(403세대) 커뮤니티 건설을 위해 현지 건설사 파크웨이 인터내셔널 컨트랙팅(PIC)을 선정
- 작년 4분기에는 라스 알 카이마의 알 마르잔 섬에 Address Residences 건설 계획을 발표

- 11월에는 두바이 하버에 위치할 Beachgate by Address* 프로젝트의 건설사로 알-사헬 컨트랙팅 컴퍼니를 선정

* 1~4베드룸 아파트로 구성된 45층 주거용 타워

< 출처 : MEED (2024. 2. 13.) >

□ UAE, 2분기 중 두바이 하수터널 PPP사업 PQ 절차 시작 예정

- Dubai Municipality가 2024년 2분기에 220억 달러 규모의 두바이 전략적 하수 터널(DSST) PPP 프로젝트에 대한 PQ 절차를 시작할 예정

- 이는 이번 주에 시작된 EPC 업체에 대한 PQ 절차가 완료된 후 진행될 예정이며, 각 PPP 제안요청서(RFP)에 대한 입찰자는 스폰서, EPC 업체, 운영 및 유지관리(O&M) 계약자로 구성된 PQ 통과 컨소시엄이 될 전망

* Dubai Municipality는 이 프로젝트의 EPC에 관심 있는 업체들에게 2월 26일까지 PQ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며, 3월 11일까지 PQ를 통과한 EPC 업체를 발표할 예정

- 이 프로젝트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전체 프로젝트에는 약 AED 300억(80억 달러)의 자본 지출이 필요하며, 전체 프로젝트 양허기간 중의 전생애 비용(whole life cost)은 AED 800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

- 두바이의 기존 하수도 시스템을 펌프 시스템에서 중력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이며, 현재 계획에 따르면 220억 달러 규모의 DSST 프로젝트는 양허 기간이 25~35년인 6개 PPP 패키지로 분리 입찰될 예정

* 첫 번째 패키지인 J1은 제벨 알리 터널(북쪽)과 터미널 펌프장(TPS)으로 구성되며, 터널의 길이는 약 42km, 링크는 10km에 달함

* 두 번째 패키지인 J2는 제벨 알리 터널의 남쪽 구간을 포함하며,

연장은 16km, 링크는 46km에 이릅니다

- * 세 번째 패키지인 W는 와르산 지역의 16km 터널, TPS 및 46km의 링크로 구성
- * 네 번째 패키지인 J3는 129km의 링크로 구성되며, 수주한 컨소시엄이 완공 후 운영 및 유지보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앞의 세 패키지와는 달리 Dubai Municipality가 운영할 예정
- * 나머지 두 패키지인 제벨 알리 및 와르산 하수처리장(STPs)의 확장 및 업그레이드는 위 네개 패키지와는 별개의 프로세스로 조달될 전망
- * 4개의 DSST-DLT 패키지에 대한 제안요청서(RFPs)는 약 6~12개월 간격으로 순차 발행 예정

< 출처 : MEED (2024. 2. 9.) >

□ UAE, 타이탄 리튬, KEZAD에 13억불 규모 리튬 가공 플랜트 개발 추진

- 통합 및 특수 목적 경제 구역의 최대 운영사인 KEZAD 그룹과 UAE의 타이탄 리튬이 칼리파 산업지역(KEZAD 알 마모라)에 최첨단 리튬 가공 플랜트를 설립하기 위한 50년 토지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
- 타이탄 리튬이 AED 50억을 투자해 3단계에 걸쳐 개발할 이 플랜트는 전 세계 배터리 제조업체와 전기차 OEM사들을 위한 배터리 등급 탄산리튬과 수산화리튬을 생산할 예정
- 이 플랜트가 건설되면 인접한 칼리파 항구를 통해 짐바브웨의 광산으로부터 연간 약 15만 톤의 리튬을 수입하여 가공할 계획
- UAE는 탄소배출 넷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50년까지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비중을 전체 판매 차량의 50%로 늘려 자국 내 배터리 소재에 대한 수요를 늘리겠다고 발표한

바 있음

< 출처 : Zawya (2024. 2. 13.) >

□ UAE, EDF/한국서부발전 컨소시엄, 알 아즈반 태양광 IPP 수주

- 에미레이츠 수전력공사(EWEC)가 아부다비의 세 번째 유틸리티 규모 태양광(PV) 프로젝트인 1,500MW 규모 알 아즈반 태양광 IPP 계약을 EDF Renewables(프랑스)/한국서부발전 팀과 체결한 것으로 알려짐
- 2023년 7월 MEED의 보도에 따르면 EDF/한국서부발전 팀이 킬로와트시당 5.1921fils(1.413달러/kWh)의 균등화 발전비용으로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출했으며, 일본의 마루베니가 두 번째로 낮은 5.3577fils/kWh의 입찰가를 제출
- 이 계약은 지난 12개월 동안 EDF가 GCC에서 체결한 세 번째 주요 계약으로, 다른 두 계약은 오만의 500MW 마나 1 태양광 IPP와 사우디의 1,100MW 히나키야 태양광 IPP 프로젝트임
- 알 아즈반 프로젝트는 작년 11월 가동을 시작한 1,584MW 규모의 알 다프라 태양광 IPP 및 운영 중인 935MW 규모의 누르 아부다비 발전소와 유사하며, UAE 에너지 전략 2050 및 UAE의 2050년 넷 제로 전략 이니셔티브를 지원
- 알 아즈반 태양광 발전 계획은 UAE 전역의 약 16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고 아부다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240만 톤 이상 줄일 것으로 예상됨
- EWEC의 전략 및 기획 담당 전무이사인 브루스 스미스는 작년 3월에 2036년까지 16GW의 태양광 발전 용량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
- * 동사는 2030년까지 태양광 용량을 5GW 추가로 확보하여 2030년까지

지 총 7.3GW의 태양광 설치 용량을 확보할 계획

- UAE는 작년 7월에 2030년까지 전국 재생에너지 용량을 19GW로 3배 늘리겠다는 계획을 담은 업데이트된 국가 에너지 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, 현재 EWEC과 두바이 수전력청(DEWA)의 총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은 5.5GW에 달함

< 출처 : MEED (2024. 2. 15.) >

□ 이라크, 두 건의 메트로 PPP 입찰서 발행

-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(NIC)가 바그다드 및 나자프-카발라 메트로 프로젝트 개발 계약의 입찰서를 2월 12일 발행
 - 이 프로젝트들은 설계, 건설, 운영, 유지보수, 금융 및 이전 모델을 사용하여 개발될 예정
 - 입찰서는 3월 12일까지 구매 가능하며, NIC는 4월 11일까지 두 계약에 대한 입찰서를 접수할 예정
- 바그다드 메트로 프로젝트는 이라크에서 가장 큰 인프라 계획 중 하나로, 총연장 150km의 7개 노선, 64개의 메트로 역, 4개의 정비소 및 차량기지, 2개의 메트로 차량 제어 및 관리 센터, 발전소 등으로 구성될 예정
 - 그린라인은 알 알라위 터미널에서 두라 터미널까지 19km 운행 예정
 - 레드라인은 알 알라위 터미널에서 마이살룬 광장까지 27.7km 운행 예정
 - 블루라인은 알 샤브 터미널에서 알 자파라니야까지 22km 운행 예정
 - 퍼플라인은 알 타야란 광장에서 알 샤브까지 14.5km 운행 예정

- 옐로우라인은 알 발라디아트에서 아단 광장까지 30km 운행 예정
- 화이트라인은 알 카디미야에서 알 바야까지 23km 운행 예정
- 공항라인은 바그다드 공항에서 알 카디시야까지 12km 운행 예정
- 90km 연장의 나자프-카라발라 메트로 노선은 나자프 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카라발라 시내 센터에서 종착하며, 4개 역을 포함
- 한편, 모하메드 알-수다니 총리의 교통 고문인 나시르 알-아사디는 카타르와 UAE의 기업들이 바그다드 메트로 입찰에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, 이라크가 카타르, UAE, 중국, 이탈리아, 스페인, 일본 등 여러 나라로부터 이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고, 조만간 투자자가 선정되면 두 프로젝트의 완공 일정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힘

< 출처 : MEED (2024. 2. 12.) / Zawya (2024. 2. 12.) >

□ 이라크, 말레이시아 컨소시엄과 메트로 프로젝트 컨설팅 계약 체결

- 이라크가 바그다드 고가 메트로 프로젝트 및 카르발라~나자프 연결 철도 계획에 대한 컨설팅 계약을 말레이시아 컨소시엄과 체결했다고 발표
- 모하메드 알-수다니 총리실은 2월 14일 현지 언론에 발표한 성명에서 이 두 프로젝트의 컨설턴트가 HSS/CHSS JV라고 밝힘
- 이라크는 두 프로젝트를 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, 컨설팅 비용도 정부가 아닌 디벨로퍼가 지불할 것이라고 밝힘

< 출처 : Zawya (2024. 2. 14.) >

□ 이라크, 메가 레일 프로젝트 2025년 초 착공 계획

- 이라크가 연구 완료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관계로 170억 달러 규

모 Development Road 프로젝트의 착공을 2025년 초로 연기했다고
동국 공식 통신사 INA가 보도

- 포 항구에서 터키 북부 국경을 지나 불가리아까지 이어지는 2,700km
의 이 철도 및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당초 2024년에 시작하여 2029년
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, 관련 연구 완료 및 노선의 경로 결정에 더
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착공이 지연될 것으로 알려짐
- 이 프로젝트는 여객 및 화물 철도 노선 건설에 약 105억 달러, 이라크 10
개 주를 통과하는 병렬 고속도로 건설에 65억 달러의 비용이 투입될 예정

< 출처 : Zawya (2024. 2. 13.) >

□ 이라크, 1GW 나자프 태양광 발전소 계약 체결 임박

- 이라크 전력부가 사우디 아크와 파워와 1,000MW 규모의 나자프 태양
광 발전소 건설 및 운영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고 2월 14일 발표
- 공식 성명에 따르면 지아드 알리 파델 전력부 장관은 3년 동안 지연
되었던 이 계약의 체결을 마무리하기 위해 아크와 파워 관계자를 만
났으며,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사우디와 협력을 강화하려는 정부의
열의를 강조
- 파델 장관은 동국 내각이 최근 이 프로젝트를 승인함에 따라 곧 모
하메드 시아 알-수다니 총리의 지원하에 공식 계약으로 이어질 것이
라고 밝힘
- 성명에 따르면 아크와 파워 대표단도 이라크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
개발에 대한 관심을 재차 강조했으며, 양측은 프로젝트 일정, 가격,
양측의 권리를 확정하고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기술 및 법적 논의
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함

< 출처 : Zawya (2024. 2. 15.) >

□ 모로코, 중국 기업의 메가 철도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 대두

- 중국철도설계공사(CRDC)가 모로코 마라케시-아가디르 고속철도 프로젝트의 예비 연구 계약을 따냄에 따라,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의 본 계약 수주 가능성이 열렸다고 모로코 신문사 Hespress가 보도
- 모로코의 저명한 경제학자 라시드 사리는 “중국 기업과 연구 계약을 체결한 것은 중국이 본 철도 계약을 따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”이라며, “중국 기업이 서구 기업보다 경쟁력이 있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”고 밝힘
- Hespress에 따르면 프랑스, 스페인, 일본 기업들이 이 프로젝트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중
- 2023년 모로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에 약 9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며, 모로코 북서부 케니트라에서 마라케시까지의 390km 구간과 마라케시에서 남부 아가디르까지 239km 구간 등 2단계로 나눠 진행될 예정

< 출처 : Zawya (2024. 2. 12.) >

3. 국제유가 및 환율동향

< 국제유가 >

구 분		유가	변 동 (전일대비)	비 고
유 가	브렌트유	82.86	+1.26	USD/bbl
	WTI	77.59	+1.23	
	두바이유	80.48(2.14.)	-1.16	



< 출처: OilPrice.com (2024. 2. 15.) >

< 환율 >

구 분		환율	비 고
환 율	KRW/USD	1,332.50	최종고시 매매기준율 (KRW)
	KRW/100JPY	888.60	
	KRW/EUR	1,435.10	

< 출처: KEB Hana Bank (2024. 2. 15.) >

한-UAE인프라협력센터

협력관 / 수자원개발기술사

백 인 혁



Flat No. 204, Airline Building, Liwa Street,
Abu Dhabi, United Arab Emirates

Tel +971-2-563-3906

Mob +971-50-675-6215

E-mail buckeyes@icak.or.kr

http://kor.icak.or.kr